

숨막힌 4시간58분 ‘아덴만 여명작전’ 대성공



청해부대 UDT 진입

청해부대원이 21일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우리 화물선 삼호주얼리호에서 선원들을 구출하고 해적을 소탕했다. UDT 작전팀이 해적이 숨어 있는 조타실로 진입하고 있다.

피랍 선원 21명 전원 구해냈다

UDT 투입 소말리아 해적 8명 사살·5명 체포 삼호주얼리호 한국인 선장 부상...생명 지장없어

삼호해운 소속 화물물질 운반선인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지 6일 만인 21일 구출됐다. 전남 출신 2명을 포함한 한국인 8명 등

21명의 선원도 안전하게 구출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구출작전(작전명 ‘아덴만 여명작전’)을 감행해 해적을 소탕하고 선박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합참에 따르면 청해부대 구축함인 최영함(4500t급)은 이날 오전 작전에 돌입해 고속단정을 이용해 특수요원(UDT)을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에 투입시켜 총격전 끝에 오후 2시56분께 해적을 제압하고 선박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순천 출신 정만기(58·기관장)씨와 화순 출신 최진경(25·3

항사)씨 등 한국인 8명과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등 선원 21명은 안전하게 구출됐으나 선장이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청해부대 군의관이 동행한 가운데 미군 헬기로 인근 국가 병원으로 후송됐다.

피랍선박에 투입된 청해부대 요원들은 전원 무사하다. 선박을 납치한 해적 13명 가운데 8명은 사살했고 5명은 생포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군은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명명하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온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을 아덴만 해역의 여명시간에 맞춰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며 “오전 9시58분부터 오후 2시56분까지 4시간 58분동안 작전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작전은 최영함의 위험 함포사격과 링스헬기의 엄호사격하에 UDT 작전팀이 은밀히 승선하면서 시작했다. UDT 작전팀은 선교와 기관실, 50여개의 격실을 차례로 장악해 AK 소총과 기관총, RPG-7으로 무장한 해적 13명 전원을 제압하고 피랍된 선원의 안전을 확보했다.

선원들은 청해부대 의료진에 의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모두 건강한 상태로 합참은 설명했다.

이번 구출작전에서 선원들이 전원 구출되고 우리 군 장비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한 작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관련 대통령담화’를 통해 “우리 군은 어떤 여건에서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다”며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구출 작전을 지시한 시점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5시12분 인질 구출 작전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손학규 “충청에” 강운태 “광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이견

민주당·광주시 정책협의

민주당과 광주시가 21일 정책협의회를 열었지만 지역 최대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했다.

<관련기사 2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청 간부, 자치구청장들과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우리가 내부에서 싸우면 충청권을 잃고 정권교체는 물건너갈 것”이라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의 주인인 광주가 대국적 결전에서 충청을 크게 안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광주·전남의 지지로 당대표가 된 사람이지만 돌팔매를 맞더라도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정권교체를 해서 우리가 이룰 것에 비하면 여기에 목매일이 아니다”며 “우리가 싸우면 이명박 정권과 형님이 의도한 대로 과학벨트가 가고 당은 또 분열할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에 앞서 인사말에서 “앞으로 광주 정신과 광주의 힘을 바탕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할 때 광주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라고 할 정도로 문화·과학·경제를 포함한 세계적인 명품 도시 광주 발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자칫 잘못하면 광주와 충청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과학벨트를 ‘형님’한테 뺏길 확률이 높다”라며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호남권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며 “과학벨트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지켜줘야 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에 유치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양측이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책협의회가 끝난 이후 애초 갖기로 했던 공식 브리핑을 생략했다.

이처럼 협의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로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광주권 유치를 주장해 온 광주시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영진 의원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과학벨트 광주·전남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며 “광주·전남 의원 중심으로 과학벨트 육성 특별법안을 만들어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북 대화준비 착수...내달 중순 예비회담

남북한은 21일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합의에 따라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후속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북한은 우리측이 제안한 ‘비핵화 남북대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 일정을 검토 중이며 다음주 중반 이를 확정해 북측에 공

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이 밝혔다.

예비회담 개최시기는 다음달 중순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으며 대령급이 예비회담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전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이 일으킨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와 유감표명,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백신접종 송아지 폐사 ▶3면

‘우리맛’ 설 선물 ▶4면

아토피 잡는 음식 ▶5면

Books ▶8·9면

극장가 ‘설 대전’ ▶10면

N-스크린 선점 경쟁 ▶12면

MUSEO 뮤제오

광주를 리더하는 특별한 분을 위한 약속-

이태리의 정통 명품 수입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품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MUSEO 뮤제오

신세계백화점
금호빌드
뮤제오
메리엇 워딩을
동성역 동성교차로
KB 국민은행
상록회관
동성동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점보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엇 워딩을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